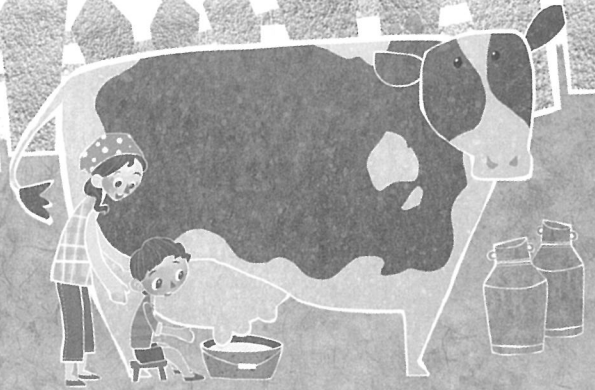


12월 사양관리

집필자 :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기광석, 임현주



사양관리

우사 단열에 신경 쓰고 바닥 얼지 않도록 주의

겨울철 소들은 바람, 기온저하 등 외부의 극한 환경으로 인해 생산성 감소, 미끄러짐에 의한 탈골, 유두손상, 송아지 폐사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우사에 단열이 안 되면 소의 몸에서 증발하는 많은 수분과 야간의 기온강하에 따른 축사 내외의 온도차이로 결로현상(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 경우 천장에서 많은 물방울이 떨어져 소의 체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우사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물방울이 병원균을 운반에 감염될 우려도 있으므로 축사의 벽이나 지붕에 단열재를 사용하거나 부직포 등을 사용해 결로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좋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소가 느끼는 체감온도가 실제온도보다 훨씬 더 낮아지므로 맞바람이 우사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윈치커튼을 내려주거나 벧집 또는 건초 등으로 북서쪽을 막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서 착유실과 급수시설의 동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착유우가 착유실로 이동하는 통로나 축사바닥에 물이 얼어 있으면 미끄러져 탈골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기를 제거하고 모래나 흙 등을 깔아준다.

젖소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식욕이 낮아지고 사료의 섭취량이 증가된다. 그 이유는 기온이 1°C 내려가면 소화율은 평균 0.2% 감소하게 되며, 우유생산 또는 증체 등 생산목적 외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열을 생산하는데 에너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을 때 소에게 급여하는 물도 너무 차가우면 젖소의 체온을 떨어뜨리고 에너지 소비량도 증가해 사료가 낭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호흡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온급수기나 지하수를 직접 활용해 너무 찬물을 먹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또한 월동용 사일로의 관리가 나쁘면 사일리지에 2차 발효가 일어나 소화율과 기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담근 먹이를 꺼낼 때에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위에서부터 10~20cm 이상 두께로 파 먹이고 사일리지를 꺼낸 다음에는 반드시 두꺼운 비닐 또는 보온덮개로 덮어준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모든 목장기록(생산비, 유대, 혈통등록, 능력검정, 체형심사, 수정, 치료기록, 송아지생산 및 도태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목장경영 성과를 분석해보자. 기록이 있는 농가는 1년 치의 장부를 꺼내 놓고 월별 우유생산량과 유대수입, 사료비를 계산해 본다.

- 유사비 = (구입 사료비/유대 수입)×100
- 낙농소득 = 조수입 - 경영비
- 낙농 순수익 = 조수입 - 생산비



번식관리

발정관찰 보조기 병행사용으로 발견율을 높여야

번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발정관찰인데, 날씨가 추워지면 활동량이 줄어들어 발정관찰도 쉽지 않다. 발정관찰이 잘못될 경우 정상우가 번식장애우로 분류될 수도 있고 번식장애우가 정상우로 인식돼 공태 상태로 장기간 지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번식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승가나 승가허용 등의 발정행위 관찰뿐만 아니라, 반드시 축사 내부에 들어가서 점액유출 등의 발정징후 등을 관찰해야 하며, 농가 실정에 맞는 발정관찰 보조기를 선택해 관행적인 발정관찰 방법과 병행하면 발정 발견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번식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보조제나 광물질 급여를 통해 번식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미 인공수정을 실시한 개체들에 대해서는 수정 후 철저히 기록을 해서 재발정일을 미리 계산, 개체별 발정관찰을 실시하고 직장검사 등을 통해 임신을 확인해 개체번식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젖소의 관리가 대부분 축사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사의 환기 및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분만 예정우는 별도의 깨끗한 공간으로 옮기고 깔짚 등을 충분히 제공해 분만 후 체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젖소는 건강하고 영양상태가 양호하면 분만 후 15~21일 사이에 발정이 재귀된다. 따라서 분만 후 난소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고, 특히 건물섭취량의 저하에 따른 에너지 부족상태가 되지 않으려면 사료를 3회 이상 자주 급여하는 등 사양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후리스톨 우사의 경우 대부분 바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승가의의욕이 떨어진다. 그러므로 톱밥 등의 재료를 충분히 깔아 승가활동이 왕성하도록 조치해 주어야 한다.

한편, 공태우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발정을 유도해 인공수정을 실시함으로써 가을철의 서늘한 계절에 송아지를 분만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 ☺